

보수·중도 아우르는 ‘빅텐트’ 칠까

뉴스분석

반기문 귀국 ‘대선 빅뱅’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과 함께 대권을 향한 광복 행보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반 전 총장은 귀국 직후 ‘국민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 전 총장의 이도문 대변인은 11일 반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와 관련, 마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이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귀국 초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한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등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알고 싶어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화합, 사회통합 등의 문제를 고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기준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오는 13일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14일엔 고향인 충북 음성읍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진도 팽목항, 경남 진해 봉하마을,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 방문 등 이념과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합 행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 전 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현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대선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2차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1차 탈당과 달리 2차 탈당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내 충청지역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인 홍문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10명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지대에 머

오늘 귀국 ‘국민통합’ 메시지

5·18 묘지·팽목항 등 방문

국민의당 호남의원들 중심

연대·합류 방안 다각 검토

바른정당도 적극 러브콜

3지대나 보수후보나 전망 반반

물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반 전 총장 영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반 총장의 합류를 희망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내세우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은 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과 함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 전 총장은 정당을 만들 시간이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러브콜에도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기존 정치세력에 당장 합류하

지 않고 독자세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기존 정세세력에 들어갈 경우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독자세력화를 이룬 뒤 연대나 통합을 통해 세력을 부풀려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 전 총장이 중도개혁정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할 경우 정치권에 나도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론’이 현실화하게 된다. 이른바 ‘빅텐트’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순서를 달리해 반 전 총장이 손 전 대표와 연대나 통합을 추진한 뒤 국민의당과 다시 연대·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3지대는 민주당의 ‘비문’(비문재인)세력과 바른정당까지 흡수하는 상황에서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야말로 빅뱅이다. 이것이 지지율 1위 정당인 민주당이 가장 견제하는 정계개편 밀그림이다.

반 전 총장이 통합이나 연대 대상으로 바른정당을 선택할 경우 신보수정당으로서 새누리당과 일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경쟁에서 이기고 보수정당 후보로 우뚝 서면 진보 또는 중도진영 후보와 일전을 벌이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러분의 변화 능력을 믿으세요” 오바마 아름다운 퇴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고별연설을 마친 후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관중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 추진

광주일보 등 한신협 지적에

여야 의원들 공동발의 나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유턴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이 11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또한, 지역 정치권 등도 법안 재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일보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광주일보 1월6일, 10

일자 1·3면 보도)한지 불과 1주일도 안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의 환원이 가시화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염웅수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04조 24항과 관련,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 공동발의요청서를 이날 각 의원실에 보냈다. 염 의원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이 공동발의 요건(의원 10명 서

명)을 갖춰 조특법 재개정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2일) 두 달도 안돼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제히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새누리당 추경호·최교일 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조특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각 권역별 정치권도 일제히 조특법 재개정에 가세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민의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도의시

하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준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취지”라며 “균형발전의 원칙을 깨는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정권 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지방분권이 정치·경제·문화·경제·문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현일기자·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특검, 오늘 이재용 ‘피의자’ 소환

박대통령·삼성 ‘뒷거래’ 수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급전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도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급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소환돼 적용이 가능하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6면
전라도 구석구석 시간 속을 걷다 ▶18면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효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